여자대학생이 인지하는 남성의 음주행위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Stereotypes of the Poor Drinker Held by University Students

박경란* · 이영숙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Park, Kyung Rhan · Yi, Yeong Sug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stereotypes toward the poor drinker held by students. Stereotypes toward the poor drinker were examined at two levels: to assess students' beliefs about the traits of the poor drinker and to categorize the traits into stereotyp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tudents reported 97 traits associated with the poor drinker.
2)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of the trait groupings revealed two high-level clusters: a cluster of 35 positive traits and a cluster of 62 negative traits. Within the positive and negative clusters, 15 middle-level categories, 5 positive categories(a kind patriarch, pure, thrifty and diligent, self-controlled, prudent), and 10 negative categories(isolated, dull, passive, not confidant, unsociable, repressed, unstable, egocentric, naive, childish) were identified. This results suggested that students believed negative stereotypes are more typical than positive ones.

Key Words : poor drinker, positive stereotype, negative stereotype

Ⅰ. 서론

사람들은 불안이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종교적 의식이나 축제를 위하여 술을 사용하여 왔다. 술은 이렇게 때때로 개인의 행복과 자존심을 높여주고 때로는 창조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하는 듯하나 술로 인한 폭력과 교통사고, 범죄행위, 가족 · 친구와의 불화나 어려움, 신체적 질환의 발생(정왕용, 1994), 그리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노인철 외, 1997; 천성수, 2000) 등 많은 부정적인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느 민족보다도 술을 좋아하였고 또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오늘날에는 빠른 산업화와 현대화,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 유교기준의 붕괴, 사회적 음주의 필요성, 경쟁적으로 과음을 부추기는 사회적 압력, 그리고 과음과 음주행동에 대한 사회의 관대한 태도 등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알코올 소비국가로 보고 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2001년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은 전체 성인의 69.8%(남자 82.7%, 여자 59.5%)로서 이중 알코올 의존자는 20.9%이며(보건복지부, 2002), 알코올 중독자는 약 백만에서 이백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정남운, 박현주, 2000) 음주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의존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유해한 음주행위는 더 이상 감추어지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문제로만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일탈성 음주는 그 특성상 사후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를 건전한 문화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는

* 2004년 동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Park, Kyung Rhan

음주행위의 주체인 사회구성원,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 그리고 음주와 관련한 사회 환경이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한태선, 1998). 즉 술이 한 문화권에서 이용되고 조절되는 양상은 음주행동의 사회화, 음주나 만취에 대한 사회의 태도, 통제 및 음주 습관 등 음주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광기, 1996). 따라서 한 개인의 특정 음주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연결망 내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음주문제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김재엽, 1998; 노인숙 외, 1998; 윤명숙, 1996)은 주로 음주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소수(예: 한태선, 199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연구가 개인과 가족, 사회에 미치는 음주의 영향만을 고찰하고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음주량이나 음주빈도 등에 대한 사회적 압력 및 음주규범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행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 가를 규명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사회구성원이 음주행위 자체를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사회생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술을 못 마시는 남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범주는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음주행위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건전한 음주문화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관련문헌의 고찰

1. 사회적 측면에서의 음주행위

음주량, 음주빈도, 알코올 종류의 선호도 등의 음주행위는 그 개인이 소속된 연결망(network)상의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Straus, 1983). 즉 같은 연결망에 속하는 개인들은 서로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을 반복해 나가면서 비슷한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한태선, 1998). 그리고 사회연결망내의 상호작용은 연결망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전체 사회성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행동에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광기, 1996).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음주행위란 자신이 속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음주행위를 개인이 학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유전적, 심리적 이유 등의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크게 나뉘어 지는데(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 2000a), Straus(1983), Skog(1991)은 문제음주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raus(1983)는 술을 마시는 것이 생리적 또는 심리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여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마시는 것을 반복함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으며 이를 사회적 의존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알코올의존을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의존으로 분류하면서 알코올의존에 이르게 되는 첫 관문은 사회적 의존이며, 이후 심리적 의존 상태에서 신체적 의존까지 전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약 사회적 의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게 되면, 대부분의 심리적 의존과 신체적 의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 의존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김광기, 1996). 술에 대한 민감도나 술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 면에서 개인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사회 문화적 음주규범이 존재한다. 따라서 알코올에 대한 생리학적인 반응에 개인차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 의존을 강화시키며(이원재, 1997), 이것이 음주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집단이 개인에 우선하는 사회구조를 갖는, 예컨대 가족주의적 사회구조를 갖는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회에 비해 알코올 민감도에 대한 개인차의 무시정도가 크게 다르다(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 2000b).

또한 사회적 규범이 집단마다 다르듯이 음주와 관련된 규범도 집단에 따라 다르다. 상이한 집단 내에서도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 또는 음주상황에 따라서 음주행위를 통제하는 규범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 결과 남녀에 따라서 음주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며, 이에 따라 알코올 사용에 대한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김광기, 1996).

2. 한국사회의 음주문화의 특징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풍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 속에는 금욕주의적 삶보다는 '즐기는 삶'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도 '혼자'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삶을 추구하였다(김문겸, 1993). 따라서 한국의 음주문화에는 술잔 돌리는 풍습, 술을 몇 차 순으로 옮기며 마시는 풍습 등 독특한 우리 나름의 습속이 있으며 그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도 음주량이 많고 음주빈도가 높다.

이와 같이 음주를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관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자신의 적정량보다 '너무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국인의 음주습성은 단독음주가 불과 6% 뿐이고, 친구나 직장동료와 함께 음주하는 사람이 66%, 기타 사업상 음주가 24%나 된다(한광수 외, 1990;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 2000c 재인용). 좀 더 사회적인 촉진효과를 높게 기대하기 때문에 음주량과 빈도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취중에 행한 실수는 너그러이 용납되며, 취중에 한 실수를 후에 문제 삼는 것은 야박한 일로 취급되기 쉽다(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 2000c).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술 실력은 사회적 실력의 일부로서 인정되고, 음주가 호탕함과 남자다움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한태선(1998)은 한국 사람들은 술 자체를 즐기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음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위해서 음주행위를 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지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면서 한국사회의 음주행위를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권위주의적이다. 예를 들어, 선배나 상사의 권위로 술은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마셔야 한다는 관념이 강요된다. 이런 행위는 공동체 나름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위지향적인 공동체 문화 속에서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의례주의적이다. 의례지향적인 음주형태는 각종 행사들에 있어서 그 모임의 본래 목적보다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형식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 본래의 목적은 감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동체나 모임 등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음주의 형태가 '음주를 통한 모임' 또는 '모임을 위한 음주'로 매몰되어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의례주의적 절차가 된다. 셋째, 중간집단 지향적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으로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습화되어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독특한 음주문화에 토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이나, 특성이 무시된 음주행동을 취하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을 산출하는 제1조사의 대상은 경남 K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 33명이었다. 이들은 가족 관련 강의 수강자 중 자원한 학생으로 이들의 나이는 19세에서 25세에 걸쳐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21.2세이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을 분류하는 제 2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은 31명이었다. 이들은 제1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여학생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20.3세이었다.

2. 조사과정

1) 조사1: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을 산출하는 과정

Schmidt 와 Boland(1986)가 사용한 방법에 따라 제 1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자"의 전형적인 특성이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를 잠시 생각하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에서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자'란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한 단어나 짧은 문구 등을 사용하여 적도록 하여 그러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열시켰다. 또한 이제까지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게 속한 것으로 들어왔던, 보아왔던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묘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또는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관계없이 서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한 단어(명사 또는 형용사)나, 유사한 의미의 두 단어(예: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짧은 구절, 또는 간단한 문장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들이 표현 서술은 최하 5단어부터 최고 45개의 단어였다.

서술된 특성은 대체로 인성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 역할 특성, 그리고 평가적인 반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내용과 고정관념 특성에 반영될 수 없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우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연구자들이 각자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 목록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비교 검토해 나가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논의 · 결정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서술한 낱말 가운데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은 가장 함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단어로 대체하여(예: 행복한 가정, 아내와 사이가 좋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정적인) 분명한 의미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명사(예: 눈치쟁이→눈치보는, 완벽주의자→완벽주의적인)나 짧은 문구(예: (아직 성인이 안 된 -> 미성숙한), 외국어(에고이스트→이기적인)는 간단한 형용사로 바꾸었다. 이러한 최종 표현의 결정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와 무관한 표현으로 판단되는 서술들은 제외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개인적 평가를 나타낸 것(예: 술 못 마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와 맞지 않는, 술 없이 어떻게 살까)이나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와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되는 서술(예: 금연하는, 계절타는, 아름다운)은 본 연구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의 인성적, 인지적, 사회적 특성, 활동이나 역할 등을 서술하는 97개 특성을 고정관념 표현으로 채택하였다.

2) 조사2: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을 분류하는 과정

'술 잘 못 마시는 남자' 특성 분류작업을 위해 우선 조사 1에서 산출된 97개의 '술 잘 못 마시는 남자' 특성을 하나씩 적은 97장의 카드와 '기타'라고 적은 1장의 카드를 포함하여 총 98장의 카드를 만들었다. 이를 조사 1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31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동일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특성들을 하나의 집단 속에 집어넣어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만일 어떤 한 특성이 하나의 집단 이상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집단 모두에 넣도록 하였으며, 반면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기타'라고 적혀진 카드에 넣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만일 두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은 해당되는 두 집단에 겹쳐 넣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류되는 집단의 수는 참여자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분류를 끝마칠 때까지 여러 번 바꾸어 재 시도해도 무방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을 완성하는데 시간제약은 없었다.

3. 분석방법

고정관념을 분류하기 위해 표시된 자료를 98*98 행렬표에 배치하였다. 이 행렬표는 같은 두 특성이 동일한 집단에 놓여지는 빈도수로 작성되었다. '기타'로 분류한 특성은 다른 모든 특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이 결과행렬표를 거리가 가까운 대상끼리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술 잘 못 마시는 남성'의 특성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97개 특성을 지적하였다. 전체 97개 특성 중 20% 이상의 사람이 지적한 특성은 18개였다(표 1). 이 중 부정적인 특성이 14개이고 긍정적인 특성이 4개로 부정적인 특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남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보다 월등히 많이 가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특성은 '사회생활하기 힘든'이었다. 이 특성은 전체의 72.7%가 지적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갖는 고정관념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음주행위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으로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습화되어있는 우리 사회의 중간집단 지향적인 특성(한태선, 1998)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 외 빈번히 지적되는 특성들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특성이 '사교성이 부족한'이며 세 번째 특성은 '허약한'인데 이 특성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집단 행위로 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단지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신체적으로 능력이 못 미치는 사람으로 보는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규범(이원재, 1997)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들 3 특성은 모두 50% 이상이 지적한 특성으로 부정적인 특성이다.

긍정적인 특성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특성은 '가정적인'이었는데 이는 전체 특성 중 다섯 번째로 많이 지적한 특성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성공지향적이고 경쟁적이며 야심있는 특성을 지니며, 여성은 의존적이고 양육적이며 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는 성역할 관념

<표1> 부정적 · 긍정적 특성의 빈도 (N=33)

부정적 특성			긍정적 특성		
	f	%		f	%
사회생활하기 힘든	24	72.7	가정적인	13	39.4
사교성이 부족한	20	60.6	신앙심이 깊은	9	27.2
허약한	18	54.5	건강이 좋은	8	24.2
남자답지 못한	15	45.5	믿음직스러운	7	21.2
재미없는	13	39.4			
순진한	13	39.4			
볼쌍한	10	30.3			
패기가 없는	10	30.3			
건강이 나쁜	9	27.2			
소심한	9	27.2			
분위기를 깨는	8	24.2			
속마음을 잘 알 수 없는	7	21.2			
어리숙한	7	21.2			
자기관리가 철저한	7	21.2			

(Jorgensen, 1986)에 따라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성은 여성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적인' 특성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긍정적 고정관념 특성은 '신앙심이 깊은' 특성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교인에게 술을 금하도록 한 교리를 적용한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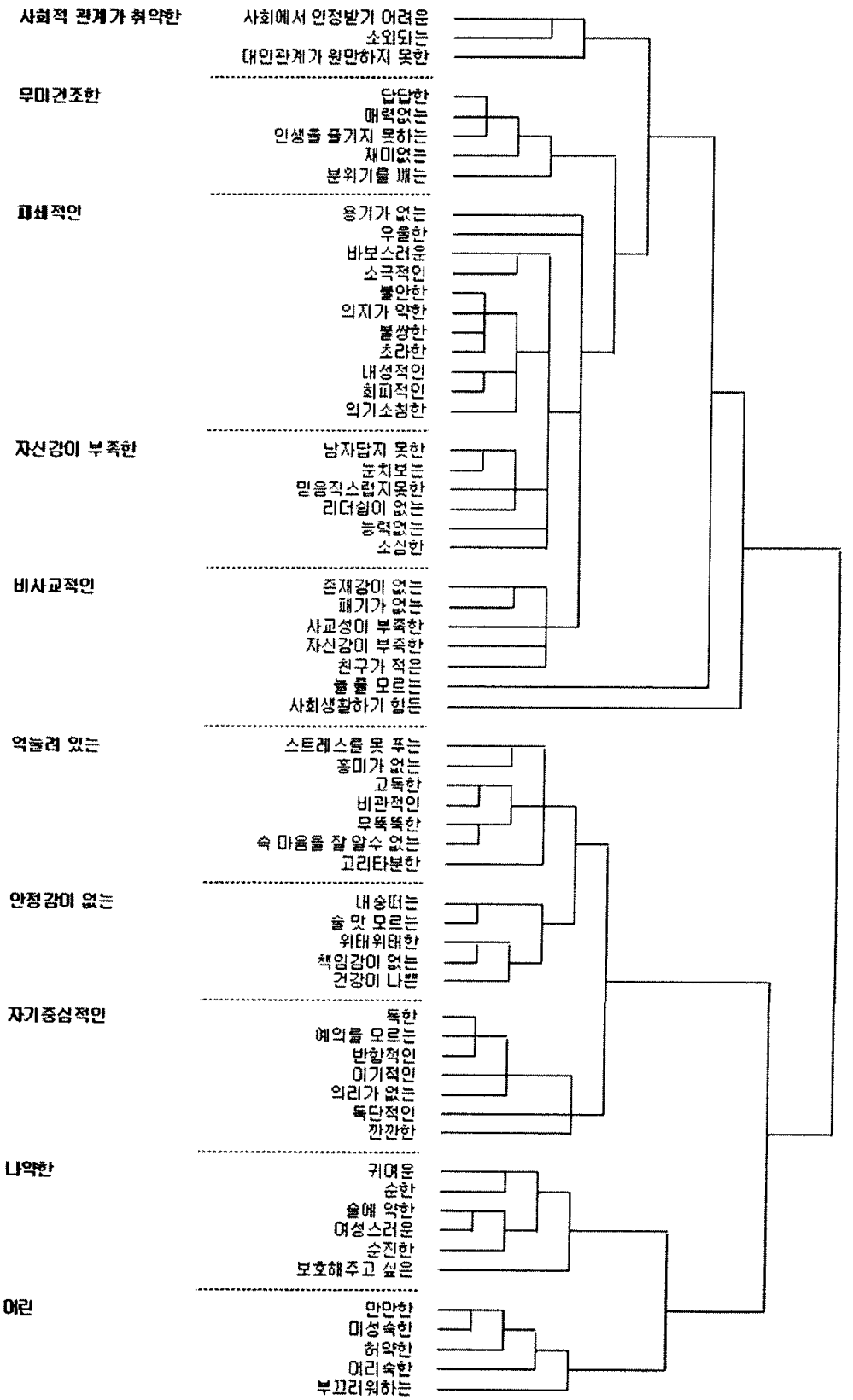
한편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보는 특성이 상반되게 지적된 점도 이채롭다. 즉, 건강이 좋은/ 건강이 나쁜, 매력이 있는/ 매력이 없는, 믿음직스러운/ 믿음직스럽지 못한, 의지가 강한/ 의지가 약한, 책임감이 강한/ 책임감이 없는 등 술을 못 마시는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서로 반대적인 의미로 인식화고 있다. 이는 같은 사람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 또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경험에 따라서 달리 인식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관념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2. '술 잘 못 마시는 남성'의 특성의 범주

대학생들이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해 갖는 97개 특성을 군집분석한 결과 상위수준에서 2 집단, 중위수준에서 15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상위 두 집단은 35개 긍정적 고정관념 특성을 포함하는 긍정적 군집과 62개 부정적 고정관념 특성을 포함하는 부정적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위 15 집단은 5개의 긍정적 군집과 10개의 부정적 군집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긍정적 고정관념(36.1%)보다 부정적 고정관념(63.9%)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풍속을 가지고 있으며(김문겸, 1993) 이 풍속이 음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 62개 부정적 특성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0개의 중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10개의 부정적 군집은 '사회적관계가 취약한', '무미건조한', '폐쇄적인', '자신감이 부족한', '비사교적인', '억눌려있는', '안정감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나약한', '어린'이었다. 그런데 이 10개의 부정적 군집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군집과 개인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군집 둘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대인관계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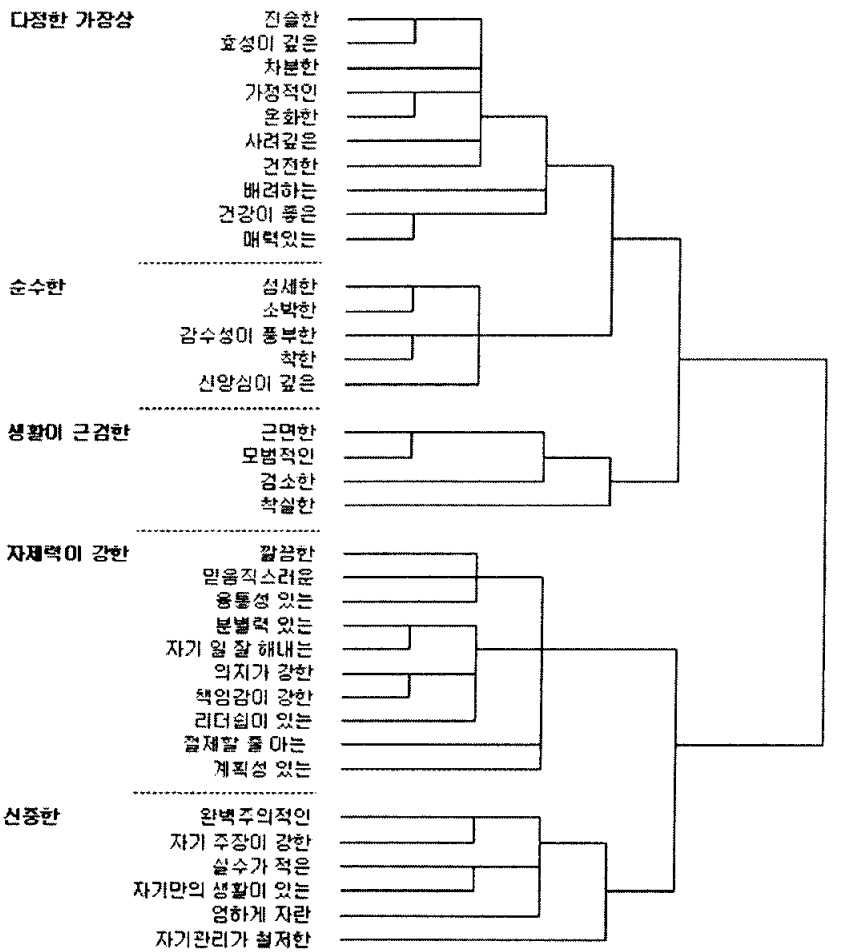
'사회적관계가 취약한', '무미건조한', '폐쇄적인', '자신감이 부족한', '비사교적인' 등 5개 집단으로 구성된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군집은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부정적인 특성이 표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제 1집단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소외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등 3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므로 '사회적관계가 취약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2집단은 답답한, 매력 없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재미없는, 분위기를 깨는 등 삶을 즐기지 못하여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소외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무미건조한
답답한
매력없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재미없는
분위기를 깨는
피세적인
용기가 없는
우울한
바보스러운
소극적인
불안한
의지가 약한
불쌍한
초라한
내성적인
회피적인
의기소침한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답지 못한
눈치보는
믿음직스럽지못한
리더쉽이 없는
능력없는
소심한
비사교적인
존재감이 없는
패기가 없는
사교성이 부족한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가 적은
늘 홀로 모르는
사회생활하기 힘든
억눌려 있는
스트레스를 못 푸는
흥미가 없는
고독한
비관적인
무뚝뚝한
속 마음을 잘 알수 없는
고리타분한
안정감이 없는
내숭떠는
술 맛 모르는
위태위태한
책임감이 없는
건강이 나쁜
자기중심적인
독한
예의를 모르는
반항적인
이기적인
의리가 없는
독단적인
깐깐한
나약한
귀여운
순한
술에 약한
여성스러운
순진한
보호해주고 싶은
어린
만만한
미성숙한
허약한
어리숙한
부끄러워하는

[그림 1] 부정적 특성

자심과 타인의 생활에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사람의 특성이므로 '무미건조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3집단에는 용기가 없는, 우울한, 바보스러운, 소극적인, 불안한, 의지가 약한, 불쌍한, 초라한, 내성적인, 회피적인, 의기소침한 등 11개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위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성들이므로 '폐쇄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4집단은 남자답지 못한, 눈치 보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리더쉽이 없는, 능력 없는, 소심한 등 6개 특성이 해당되며 이는 자신감이 없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의 특성들이므로 '자심감이 부족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5집단은 존재감이 없는, 패기가 없는, 사교성이 부족한, 어리숙한, 친구가 적은, 놀 줄 모르는, 사회생활하기 힘든 등 7개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타인과 사귀는데 필요한 특성이 부족하여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들이므로 '비사교적인'으로 명명되었다.

10개의 부정적 집단 중 개인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군집은 '억눌려있는', '안정감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나약한', '어린' 등 5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모두 개인의 인격적 측면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특성이 표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제 6집단은 7개의 특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못 푸는, 흥미가 없는, 고독한, 비관적인, 무뚝뚝한, 속마음을 잘 알 수 없는, 고리타분한 등 억압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지는 개인이 가지는 특성들이므로 이는 '억눌려있는'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7집단은 내숭떠는, 술맛 모르는, 위태위태한, 책임감이 없는, 건강이 나쁜 등 개인적인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항상 불안감을 주는 사람이 가지는 특성들 5개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안정감이 없는'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8집단은 독한, 예의를 모르는, 반항적인, 이기적인, 의리가 없는, 독단적인, 깐깐한 등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특성 7개이므로 이는 '자기중심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9집단은 귀여운, 순한, 술에 약한, 여성스러운, 순진한, 보호해주고 싶은 등 강인하지 못하고 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 약한 여성적인 모



[그림 2] 긍정적 특성

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 6개이므로 '나약한'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제 10집단은 만만한, 미성숙한, 허약한, 어리숙한, 부끄러워하는 등 5개 특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성숙하지 못한 인성으로 유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진 특성들이므로 '어린'으로 명명되었다.

반면 대학생들이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해 인지하는 긍정적 고정관념은 전체 97개 특성 가운데 35개 특성으로 구성되어있다. 35개 특성이 포함된 긍정적 고정관념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게 갖고 있는 긍정적 고정관념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5개의 중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5개의 긍정적 군집은 '다정한 가장상', '순수한', '생활이 근검한', '자제력이 강한', '신중한'이었다. 그런데 이 5개의 긍정적 군집을 살펴보면 가정에 대한 측면을 나타내는 군집과 개인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군집 둘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가정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긍정적 고정관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부정적인 군집이 대인관계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짐과 비교된다. 즉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만 그리고 가정적 면에서는 긍정적 면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술 잘 못 마시는 것은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가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이 이채롭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제 1집단에 포함되는 특성은 진솔한, 효성이 깊은, 차분한, 가정적인, 온화한, 사려 깊은, 건전한, 배려하는, 건강이 좋은, 매력 있는 등 10개 특성으로 이는 모두 오늘날의 가장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의 특성에 해당되므로 '다정한 가장상'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2집단은 섬세한, 소박한, 감수성이 풍부한, 착한, 신앙심이 깊은 등 5개 특성으로 이는 삶의 때가 묻지 않고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의 특성이므로 '순수한'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3집단은 근면한, 모범적인, 검소한, 착실한 등 4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생활이 근검한'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4집단은 깔끔한, 믿음직스러운, 융통성 있는, 분별력 있는, 자기일 잘 해내는, 의지가 강한, 책임감이 강한, 리더쉽이 있는, 절제할 줄 아는, 계획성 있는 등 10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은 모든 일에 철저하여 신뢰할만한 사람이 갖는 특성이므로 '자제력이 강한'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5집단은 완벽주의적인, 자기주장이 강한, 실수가 적은, 자기만의 생활이 있는, 엄하게 자란, 자기관리가 철저한 등 6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매사에 철저하여 완벽을 기하는 사람의 특성이므로 '신중한'이라고 명명되었다.

전반적으로 이상의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고정관념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에 부여하는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취중에 행한 실수는 너그러이 용납되며, 취중에 한 실수를 후에 문제 삼는 것은 야박한 일로 취급됨(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 2000c) 정도로 술을 못 마시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념이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대학생들도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이와 같은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이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은 현대 우리 사회의 영향뿐 아니라 전통사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풍속을 가지고 있어서(김문겸, 1993) 전통사회에서부터 술은 우리의 생활과 분리되어 생각하지 못 할 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긍정적 관념도 일부 갖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특히 긍정적 고정관념은 가정적인 측면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술을 마시는 것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술 잘 못 마시는 남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져오는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 및 그 범주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여자 대학생에게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개방형질문의 조사를 하였고, 여기에서 얻은 서술들을 다른 여자 대학생에게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을 분류하도록 하는 이차 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이 전형적인 '술 잘 못 마시는 남자'의 특성으로 서술한 단어는 총 97개였다. 전체 피험자의 20% 이상의 사람이 지적한 특성 18개 중 부정적인 특성이 14개, 긍정적인 특성이 4개로 부정적인 특성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남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보다 월등히 많이 가짐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특성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특성은 '사회생활하기 힘든'이었다. 이 특성은 전체의 72.7%가 지적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갖는 고정관념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 행위를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한 부정적 특성이 '사교성이 부족한'으로 나타내어 음주행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술 잘 못 마시는 남자'는 우리 사회에서 생활에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술 잘 못 마시는 남자' 특성에 대한 군집화 분석결과 긍정적 특성 군집(35개)과 부정적 특성 군집(62개)으로 나뉘어졌고, 두 군집 내에 15개의 중간 수준의 군집 즉 5개의 긍정적 특성 군집과 10개의 부정적 특성 군집이 산출되었다. 그런데 부정적 고정관념 군집은 대인관계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지고, 긍정적 고정관념 군집은 가정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즉 술 못 마시는 남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만 그리고 가정적 면에서는 긍정적 면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술 잘 못 마시는 것은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가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이 이채롭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술을 잘 못하는 남성에 대하여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남성들로 하여금 자칫 잘못된 음주행위를 강화시키고, 이것이 알코올 남용과 같은 음주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범주 10개 가운데 5개가 사회적 대인관계와 관련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권위적인 상하관계나 지나친 집단결속을 강조하는 비합리적인 음주형태 등은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성들이 개인적으로 나약하고, 미성숙하고, 폐쇄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변의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당사자 개인이 당당한 태도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술 못 마시는 남성들에 대한 인식이 전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긍정적인 측면도 다양하였다. 특히 가정의 중요성이 중시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술을 잘 못 마시는 것이 무능력한 사람의 특성이라고만 보지 말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술을 잘 못 마시는 남성들이 자신의 음주량을 감추기 위한 무모한 용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음주문화의 풍토를 확립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 등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코올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함이 요망된다. 또한, 한태선(1998)의 지적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음주는 공동체를 규합하는 하나의 매개수단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음주가 아닌 다른 여가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 모임을 유도하려는 노력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 시에는 이들의 연령대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세대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 본 연구결과와 비교·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음주행위, 긍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고정관념.

참 고 문 헌

김광기(1996) 알코올문제의 사회적 의존에 대한 소고.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논문집, 2,** 45-64.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재엽(1998) 스트레스 및 알콜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03~118.

보건복지부(2002)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총괄 편**.

노인숙, 김윤희, 김경빈, 오동렬(1998) 알코올의존환자 부인의 공동의존 정도와 건강 상태. **중독정신의학, 2(2),** 236-243.

노인철, 서문희, 김영래(1997) **음주의 경제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명숙(1996) 알콜 중독 남편의 단주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원재(1997) 음주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3(2)**.

정남운, 박현주(2000) **알코올 중독**. 서울, 학지사.

정왕용(1994) 알콜중독자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성수(2000) **알코올로 인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문제**. 서울, 대한보건협회 · 한국알코올과학회.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2000a) **술을 마시는 이유**. 서울, 대한보건협회 · 한국알콜과학회.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2000b) **알코올 관련 문제의 범위와 개념**. 서울, 대한보건협회, 한국알코올과학회.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2000c) **알코올문제 예방법**. 서울, 대한보건협회 · 한국알콜과학회.

한태선(1998) **음주의 사회문화적 의미: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Jorgensen SR (1986) *Marriage And The Family-Development And Change*. Macmillan.

Knox VJ, Gekoski WL, Kelly LE (1995) The Age Group Evaluation And Description(AGED) Inventory: Anew Instrument For Assessing Stereotypes Of And Attitudes Toward Age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0(1),* 31-55.

Schmidt DF, Boland SM (1986) The Structure Of Impressions Of Older Adults: Evidence For Multiple Stereotypes. *Psychology And Aging*, 1, 255-260.

Skog O (1991) Implications Of The Distribution Theory For Drinking And Alcoholism. In. Pitterman DJ, White HR(Ed.). *Society, Culture, And Drinking Patterns Reexamined*. New Brunswick, NJ, Rutgrs Center of Alcohol Studies, 576-597.

Straus R (1983). Types Of Alcohol Dependence. In Klssin B, Begleiter B.(Ed.). *The Biology Of Alcoholism*, Vol. 6, The Pathogenesis Of Alcoholism: Psychosocial Factors, New York, Pleum, 1-16.

(2005. 01. 30 접수; 2005. 01. 18 채택)